

1930년대 후반 잡지 『여성(女性)』의 독자 글쓰기 연구

— 여성주체의 형성과 여성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정 영 진*

요약

본고는 『여성(女性)』(1936.4.~1940.12.)에 게재된 8편의 독자 실화에 나타난 여성의 내러티브에 주목하여 이시기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여성』은 강력한 전시 체제의 가동에 있어 구심점이 될 '여성'을 가정의 경영자로 호명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규범화하는 한편 독자란을 통해 이에 응답해 나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함께 배치하여 이 시기 여성 담론을 조율해 가고자 했다. 본고는 이들 독자 실화를 대상으로 식민지 말기 여성이 근대의 체험을 자기화하면서 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 이 시기 여성 담론에 대응해 나가는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자 실화에서 여성의 경험은 하나의 사건으로 의미화되며 재현의 주체로써 여성은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성은 자신이 놓인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면서 문제적 상황에 대응해 가는 주체적 면모를 보여준다. 여성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들 실화에서는 남성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이면을 통해 사회적으로 타자화된 여성의 실체를 드러내고 주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도 발견된다. 남성 화자에 의해 그려진 여성의 이미지가 허구였음을 폭로하는 한편 욕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남성 주체의 위태로운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또한 가부장의 해체와 이에 대한 도전도 시도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도 포착된다. 여성은 방탕에 빠진 남성을 대신하여 기정을 이끌어가는가 하면 미달한 가부장으로서의 남편을 교화하는 역할까지

* 인하대학교 프린티어학부대학 강사

수행한다. 가부장을 대신해 가정을 전면에서 이끄는 여성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여성의 역할 전환을 보여준다.

주제어: 여성주체, 내러티브, 독자 실화, 모성론, 여성담론

목차

1. 모성 담론과 여성 주체
2. 실화에서 자기서사로, 주체되기의 방식
3. 타자화된 여성과 소외된 남성 주체
4. 남성성의 전유와 가부장의 해체
5. 결론

1. 모성 담론과 여성 주체

1936년 4월 조선일보사에서 창간되어 1940년 폐간될 때까지 약 5년 간 결호 없이 매월 발행을 지속한 『여성(女性)』(1936. 4.~1940. 12. 통권 57호)은 근대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 대상 매체 중 하나이자, 식민지 말기의 여성 담론을 주도한 매체로 볼 수 있다. 발행기간의 대부분이 일제의 전시기와 맞닿아 있음에도 발간의 지속성을 유지했다는 사실, 특히 여성 대상 매체로써 이시기 발간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시체제의 가동과 유지에 여성의 역할이 일정하게 요구되는 한편 유효하게 작용했음을 반증한다.

전쟁을 지원하는 후방의 부인, 즉 총후(銃後) 부인 담론은 일제의 총력전 체제가 주조한 국가주의 담론이었지만 그 생산과 확산의 과정은 식민지 말기의 내외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여성’ 담론을 변화시킬 중요한 변이가 되었다. 여성은 국가를 승리로 이끌 동반자, 나아가 전시상황의 간접적 참여자라는 또 다른 주체로 호명되지만, 이는 오히려 여성의 자주

성과 독립성을 억압하고 전통적 여성성의 강화라는 목적성으로 나아간다. 특히 그 안에는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경제성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유행을 좇고 사치를 일삼는 (신)여성에 대한 비판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가정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여성상이 합리화되는 과정이 전개된다.

종합여성교양지를 표방한 『여성』은 창간 당시부터 화려한 사진 이미지를 과감하게 삽입하고 스포츠, 법률, 위생, 패션, 요리,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지식을 두루 소개하며 독자들을 교양 있는 “현대여성”으로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창간호에는 권두언이나 서언 대신 「하이킹 예찬」¹⁾이라는 글이 전면에 배치되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시대의 여성상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현대여성(現代女性)”은 “자연(自然)에대(對)해 좀더대담(大膽)한동경(憧憬)과 애착(愛着)”을 가진 “굴강(屈強)과 명랑(明朗)의 조화(調和)”를 이룬 여성으로 “불량소년적(不良少年的)악취미(惡趣味)”를 가진 “신(新)(?)여성(女性)의 비속성(卑俗性)”을 완전히 거부하는 “새세기(世紀)의 맑은피”로 규정된다. 이때 하이킹은 “창경원(昌慶苑)야영(夜櫻)을 잠고대하는” 신여성과 대비하여 “건강(健康)하고 탄력(彈力)이넘치고 씩씩”한 새시대의 여성을 상징하는 스포츠로 대변된다.

이처럼 『여성』은 여성의 신체에 주목한 스포츠 체육 전략으로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호명하며 등장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게재되는 이광수의 「여대학(女大學)」²⁾의 모성론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체육의 필요는 “자녀(子女)의보건(保健)과 “가족(家族)의 건강(健康)”³⁾을 위한 목적에 있다. 즉

1) 김상용(金尙鎔), 「하이킹 예찬(禮讚)」, 『여성』, 1936. 4. 2면.

2) 이광수의 「여대학」은 『여성』 창간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즉(卽)가정(家庭)이란 한 조직체(組織體)요...오직사랑과 의무(義務)와봉사(奉仕)로만 된 조직체(組織體)”: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결혼론(結婚論)」, 1936. 4. 6-7면, “여자(女子)의 사명(使命)의 주체(主體)가 모성(母性)임”: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모성(母性)」, 1936. 5. 12-13면, “인류(人類)의 평화(平和)와 행복(幸福)은...실(實)로 모성적(母性的)인 사랑에서만 오는 것”: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모성(母性)으로의여자(女子)」, 1936. 6. 8면.

건강한 육체는 “가정의 제왕”⁴⁾으로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필수조건으로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또 하나의 규율이자 통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시기 여성의 신체는 확장된 가부장제로서의 국가개념⁵⁾에 의해 이처럼 조직적인 방식으로 타자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일생(一生)을 희생”하여 “모성애(母性愛)의 존귀(尊貴)함”⁶⁾을 실현해야 한다는 모성 담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 새롭게 대두되는 모성 담론에서는 모성애를 여성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위한 기제로 의미화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우선 가정은 “부부(夫婦)라는 남녀양인(男女兩人)의 직장(職場)”으로, “생식(生殖)이외(以外)에 문화(文化)의 보존(保存)온양(醞釀)전파(傳播)의 기능(機能)”을 하는 “한 조직체(組織體)”로 정의된다. 즉 가정은 “자녀(子女)의 건전(健全)과 행복(幸福)을 주(主)로한 결합(結合)”⁷⁾이며, 이때 “어머니는 인생(人生)의 뿌리어니와 혈육(血肉)의뿌리”가 되므로, 여성은 “사명(使命)의 주체(主體)가 모성(母性)임”⁸⁾을 자각하여 “인류(人類)의 평화(平和)와 행복(幸福)”⁹⁾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고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임무를 통해 국가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이같은 논의는 여성 담론이 모성애를 중심으로 국가주의 담론에 포섭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를 기반으로 이후 여성 담론이 소비와 절약, 노동과 생산이라는 사회적 담론¹⁰⁾과 긴밀히 결

3) 박봉애(朴奉愛), 「가정부인(家庭婦人)과체육(體育)」, 『여성』, 1936. 6. 9면.
 4) 이광수, 「여대학(女大學): 모성(母性)으로의 여자(女子)」, 『여성』, 1936. 6. 8면.
 5) 서영인, 「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현대소설연구』 3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43면.
 6) 임정혁(任貞嬾), 「고결(高潔)한 모성애(母性愛)가있을뿐」, 『여성』, 1936. 5. 37면.
 7)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결혼론(結婚論)」, 『여성』, 1936. 4. 6-7면.
 8)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모성(母性)」, 『여성』, 1936. 5. 12.-13면.
 9) 이광수(李光洙), 「여대학(女大學): 모성(母性)으로의여자(女子)」, 『여성』, 1936. 6. 8면.
 10) 창간 이듬해인 1937년부터 『여성』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비판(「조선신여성론(朝鮮新女性論)」, 1937.2.)과 함께 여성도 생산과 노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938년

합해 나가며 총력전 체제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식민지 말기 여성 담론은 군국주의와의 긴밀한 상관관계 아래 “나라의 어머니”¹¹⁾가 되어 “나라의 아들”¹²⁾을 양성해야 한다는 총후부인 담론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여성』은 이 시기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는 여성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담당하는 주요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 담론의 표층적 변화상만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직조되고 형성되며 작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회적 변화상과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로써 『여성』의 의미는 다시 한번 주목되는 것이다. 그간 『여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1930년대 총후반이라는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여성의 근대경험과 관련한 주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갔는지¹³⁾ 논의되어 왔다. 광은회는 이전의 여성 담론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국가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재원으로써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점에 주목하여 총력적 체제 하의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여성의 이미지¹⁴⁾에 천착하였고, 심진경 역시 일본제국주의 전쟁의 본격화와 함께 이시기 『여성』에 나타난 여성 담론이 전시기의 식민규율에 의해 이중으로 왜곡되어 간 과정에 주목하였다.¹⁵⁾ 이들 연구는 국가주의와 그에 내포된 가부장의 논리에 의해 여성 담론이 퇴행적인 경로¹⁶⁾를 밟고 있음을 논증하면서 그 과정에 여성 지식

부터는 태평양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비상시국이 천명되면서 여성들이 생산력 확충과 소비 절약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 11) 이정희(李正熙), 「우리는총대의 뒤를맡은자들」, 『여성』, 1939. 5. 18면.
- 12) 이숙중(李淑鍾)(성신가정여학교교장(誠信家政女學校校長)), 「우리들나라의안해는」, 『여성』, 1939. 7. 22면.
- 13)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 『여성』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64-265면.
- 14) 광은회, 「전시체제기 노동·소비 담론에 나타난 젠더 정치 -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 『인문연구』 통권 5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73면.
- 15) 심진경, 「여성과 전쟁 -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 16)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 『여성』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인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즉 이시기 여성 지식인들이 남성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답습¹⁷⁾하면서 당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전쟁참여 논리를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¹⁸⁾ 것인데, 이들은 이전 시기 전통적 가부장제에 반기를 들고 여성의 주체성과 권리를 주장했던 이른바 신여성들로 지목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성 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양상은 이시기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이 단선적이지 않으며, 여러 복합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교육과 더불어 근대의 다양한 국면을 학습해온 여성 주체들은 국가사회의 내외적 충격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주체되기를 실현해 가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에 나타나는 여성의 목소리는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고 경합하면서 내부적으로 분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모방과 반복에도 차이가 존재하듯이 여성의 목소리에도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당대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며 반응하는가의 문제이다. 근대의 경험을 자기화하면서 사회적 담론에 응답해 나가는 과정에는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근대를 통과해 가는 여성의 역사적 경험이라면 근대는 여성의 입으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여성』의 독자 글쓰기에 나타난 여성의 내러티브에 주목하여 식민지 말기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여성』은 당시 『조광』의 주요 편집진이 편집을 담당했지만 여성 필진이 다수 포진하여¹⁹⁾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7) 위의 논문.

18) 서영인, 「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현대소설연구』 3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37면.

19) 『여성』의 편집진과 운영진이 모두 여성은 아니었지만, 여성기자를 비롯해 여학교 교사와 문화계의 주요한 여성 필진들이 상당량의 원고를 담당하였고, 모윤숙과 장덕조, 이선희, 허하백, 심은숙(沈恩淑) 등은 주요한 필진으로 오랜 기간 잡지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시기 여성 담론을 다양한 입장에서 조율해 가는 한편 독자란을 통해 이에 응답해 나가는 독자의 목소리를 함께 배치하였다. 독자 글쓰기로는 실화(實話)를 주요하게 모집하여²⁰⁾ 일상생활의 산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²¹⁾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전 시기 여성 대상 매체에서 애화나 비화, 야화 등 전근대적인 ‘화(話)’의 세계 속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재현하려²²⁾ 했던 것에 비해 실화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이를 기록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이시기 여성의 내러티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여성』에 게재된 8편의 독자 실화를 대상으로 식민지 말기 여성이 근대의 체험을 자기화하면서 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이시기 여성 담론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실화에서 자기서사로, 주체되기의 방식

『여성』은 창간해인 1936년 11월호부터 페이지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독자란을 생성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1월 처음으로 독자 실화(實話)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공고 후 다음호부터 당선 실화를 게재하여 1940년 6월까지 총 8편의 실화를 싣고 있는데 당선작 상황은 아래와 같다.²³⁾

20) 실화(實話)모집

달마다 「실화」를 실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무더두지마시고 시원스레 전부다터놓으시오. 400자원고지로 넉장까지쓰시면 됩니다. -여성편집부; 『여성』, 1937. 1. 97면.

21) 『여성』, 1937. 10. 57면.

22) 김경연, 「근대문학의 제도화와 여성의 읽고 쓰기-『신여성』을 중심으로」, 『코기토』 66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8. 119면.

23) 목차와 실제 게재면을 확인하여 당선실화(當選實話), 혹은 입선실화(入選實話)로 명기된 실화만을 집계하였으며 이외 실화들은 독자 글쓰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게재 년월	제목과 작자명	면수
1.	1937.2.1.	제야(除夜) - 최연분	p.88-90
2.	1937.12.1.	상처(傷處) - 원순갑(元順甲)	p.52-55
3.	1938.1.1.	끊어진가-타줄 - 김순례(金順禮)	p.60-63
4.	1938.3.1.	분이 - 임영창	p.52-53
5.	1938.6.1.	눈물의 유서(遺書) - 경성(京城) 김순례(金順禮)	p.76-78
6.	1940.4.1.	인내(忍耐)의길 - 김신자(金信子)	p.45-49.
7.	1940.5.1.	마음의 보수(報酬) - 원순갑(元順甲)	p.80-84.
8.	1940.6.1.	때리면때릴수록정성을베폰것이 - 고영옥(高英玉)	p.84-87.

실화 모집 이후 1938년 8월부터 『여성』은 독자란을 통해 시, 시조, 수필, 소품 등을 모집하였지만, 당선작으로 시만 게재되었을 뿐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1940년 2월 창간 4주년기념 원고모집²⁴⁾을 통해 다시 실화를 확대 모집하여 3편의 당선작을 게재하였다. 실화는 근 4년 동안 8편이 게재된 것으로 편수로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성』의 독자 글쓰기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당선작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400자 원고지 4매에서 시작하여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확보한 이야기 형식의 글쓰기였다는 점, 발행기간 동안 꾸준히 게재되어 시기별 여성의 내러티브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시기 여성 대상 매체에서 독자 글쓰기를 모집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²⁵⁾ 등을 고려했을 때 식민지 말지 여성 독자의 글쓰기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독자 실화가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면서 여성의 내러티브를 직조해 나가는 양상에 주목하여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실화는 서술자의 시각이 주도적으로

24) “여성창간4주년기념 원고모집 투고환영”, 『여성』, 1940. 2. 87면.

25) 1930년대 중반에 발행된 여성 대상 매체로는 『신가정』(1933.1.~1936.9.)과 1931년 속간하여 1934년까지 발행된 『신여성』, 그리고 사해공론의 자매지로 1936년 발행된 『부인공론』이 등이 있으나 1940년대까지 발행을 이어가며 독자 글쓰기를 꾸준히 모집한 경우는 드물다.

드러나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점에서 독자 글쓰기로써 주목된다. 독자는 자신이 겪은 일상의 경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나가면서 자신이 놓인 사회적, 문화적 관계망을 사유하고 이를 총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일상의 경험은 하나의 사건으로 의미화되며 재현의 주체로써 독자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여기서 여성의 일상은 더 이상 주변적 이야기가 아니며 세계를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물로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학교 생활이나 애정 문제, 가정 생활 등 여성의 모든 일상적 경험은 이야기가 되고 필자로서 여성은 주인공이자 서술자가 되어 세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세계에서 전통적 가부장적 세계는 무화되며 이야기는 여성의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실화 모집 공고 후 다음호에 실린 입선실화 「제야(除夜)」(1937.2.)와 동해 12월에 게재된 「상처(傷處)」(1937.12.)는 불안정한 가정 생활과 혼란한 연애 문제에 마주한 여성의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1인칭 ‘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들 실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드리워 있는 불안과 우울,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면서 근대 세계에 던져진 개인의 혼돈과 불안정성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실화에서 주인공은 애화나 비화 등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비극적 상황에 침착되지 않으며 오히려 담담한 시선으로 그 파동의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차분하게 문제에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들 여성이 마주한 세계의 모습과 문제적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정은-가정이랑 나의남편과 쫓먹이어린딸과 세사식구지마는 신년이라는 관념에 너머나등한합니다.....밥이야 굶기야하오릿가마는 수므하로 사날만되면 웬빚쟁이가 그러케도많이들어오는지 처음은 참마음이어떨떨하며 장래를 생각해서 비관한적도많엇답니다...나의남편의 성미가 너머우울한편이되여서 모든사람이 떠드는것을 싫어하고 침묵주의자가되여

서 이세상모든일에 관심과돈착이 없는것갔습니다 양력설이되어도 눈한 번아니감적이고 어데선사한곳 보내는대없고 과자한봉 사올때가없지요²⁶⁾

선달 그믐날 밤, 한 가정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제야」는 결혼한 지 3년 된 스물 한 살 젊은 아내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남편과 젓먹이어린딸」로 이루어진 '나'의 세계는 달마다 빗쟁이들이 찾아와 위협하는 균색한 세계이자 장래를 꿈꾸기 어려운 비관적 세계로 그려진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 보다도 문제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과 애착이 없는” 데다 우울한 성미를 가진 침묵주의자 남편으로 드러난다. 남편의 이러한 모습은 단출한 가정에 불안을 드리우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해의 집안 풍경을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야」의 화자가 이러한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놓인 세계를 관망하고 있다면 「상처」에서는 고독한 내면을 가진 주인공 화자가 등장한다.

어려서부터 외롭게자랐고 부모도 동생도없고 다만 함흥에게신 숙부의 도움으로 서울와서 공부만은 하게되든나는 늘침울했고 나의 진정한벗이 없었다

그러자 필수씨와의환경이 나와비슷하고보니 그가 남자다운 미남자에서 보다도 환경과 처지가 비슷한그것이 나로하여금 더욱그를 사랑하게되고 그에게 장래의 약속까지하게되었는지도 모른다²⁷⁾

「상처」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부모형제 없이 홀로 서울에 와서 외롭게 공부하는 여학생으로 그려진다. 벗도 없이 늘 침울하고 고독한 세계에서 지내던 화자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필수라는 남학생에게 끌리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글의 서두에서 화자는 모파상의 작품

26) 최연분, 「제야(除夜)」, 『여성』, 1937. 2. 1. 88면.

27) 원순갑(元順甲), 「상처(傷處)」, 『여성』, 1937. 12. 1. 53면.

『여자의 일생』의 한구절을 빌어 “어여쁜 아가씨와 젊은이사이에 생겨지는 미묘한 애연(愛戀)의정”²⁸⁾으로 당시의 감정을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 이 사랑의 관계가 과탄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연애 문제는 당시 『여성』의 기사나 소설 등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특히 독자 실화 모집 공고 이전 게재된 두 편의 실화²⁹⁾에서 공통된 소재로 등장한 바 있다. 이들 실화에서는 자유연애를 하다 불량청년에게 빠지게 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자유연애를 경계할 것으로 그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처」의 화자는 “무슨변명같지만 우리는 그러케 사랑만을 서로 속삭이지않었고 그리고 아름다운꽃동산을 눈을감고 그저막짓밟지도 았었다.”고 서술하면서 여학생의 연애가 불량하고 그릇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화자는 “나는 그를 무슨보물과같이 위하고 태산과같이믿고 기둥과같이 의지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고독한 자기에게 위안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균열을 맞게 된다. 같은 반에 다니던 영자가 나의 하숙으로 옮겨오면서 이들의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야」의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저녁 병자년을 마즈막 보내는 제야를 당하였답니다 초저녁부터 마루턱에 걸어앉아서 즐느고 즐느든 빗쟁이는 나의결혼반지 전당으로써 그이자(利子)를치르고 구구사정하여 돌려보내고난 제야의쓸쓸함은 한층 더하였읍니다.....오직 이적막을 깨트릴사람은 나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나는 남편의결에 사르르 닥어앉엇읍니다 그리고 말을건너보았읍니다

「여보 래일아침에도 국죽끄러먹읍시다 네」 남편은 아무대답도없엇습

28) 원순갑(元順甲), 「상처(傷處)」, 『여성』, 1937. 12. 1. 52면.

29) 이정자(李貞子), 실화(實話) : 「여학생(女學生)의그릇된연애(戀愛)」, 『여성』, 1936. 12. 1, 김공주(金公珠), 실화(實話) : 「남성(男性)」, 『여성』, 1937. 1. 1

니다...

나는장롱 밑구녕에 우리들의 첫사랑의 하소연을넣어어둔 편지봉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곁봉에는 붉은잉크로 『백년보존물』이라 써여있고 그
밑에 남편의서명과 나의서명이있으며 각각도장이 꼭꼭찍혀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혼초야에 그의맹서와나의맹서로하고 그증거물로 그와나
의 첫편지를넣어서 꼭봉하고는 갈치서명한것입니다. ...남편은한참 그것
을멀그림이 보더니 두손으로 힘껏 가슴에 껴안고별안간 두눈에 눈물이
비오듯흘너나랍니다 「고맙소 모든것이 고맙소이다...」³⁰⁾

한해의 마지막 날, 빗쟁이에게 결혼반지까지 저당 잡히고 집안은 적막
만이 감돈다. 화자는 그 적막을 깨고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 내일 아침에
도 국죽을 끓여먹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건네보지만 남편은 침묵을 지
킬 뿐이다. 국죽은 지난 설에 조강지처 운운하면서 남편이 끓여내온 음식
으로 찬밥에 남은 찬을 넣고 대강 끓인 것이었지만 둘이 같이 이마를 맞
대고 훌덕훌덕 먹던 “참고량진미 이상의 맛”을 가진 추억의 음식이다. 화
자는 “구차한 생활이나마 꿀맛갈치 달게반”을 수 있었던 그같은 일상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고난도 의연하게 건너가려는 것이다. 이와 대
비하여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만 빠져 이같은 상황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에 화자는 그들의 세계를 이어준 애정의 증거물을 끄
집어낸다. 결혼초야에 사랑을 맹세하는 증거로 함께 서명하여 『백년보존
물』이라고 써서 보관해 두었던 사랑의 서신을 꺼내든 것이다. 그제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세계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미안하다
는 말 대신 “모든 것이 고맙다”는 말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진정한 마
음의 화답을 보낸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밤,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
며 남편은 “나를위해서가아니라 나의두존재를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

30) 최연분, 「제야(除夜)」, 『여성』, 1937. 2. 1. 89면.

망을 주라”는 편지를 새로 써서 아내의 머리맡에 바친다. 화자는 “말없는 그의침묵가운데서 그의무한한 고통을발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새로운 날을 축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제아」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단조롭게 그리면서도 이시기 여성 담론에서 강조하는 모성론에서 한발 비껴간 이야기 구조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화자인 아내는 우울하고 나약한 남편과 빈곤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남편을 탓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일상을 유지하면서 가정에 깃들인 우울과 불안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이 놓인 세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는 가정의 문제가 한 사람의 일방적 희생이나 감내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오히려 상대방을 타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자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가 마주한 고독과 허무의 세계를 위무하고자 한다. 이는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는 또 다른 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고통 속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는 주체의 모습은 「상처」에서도 나타난다. “나에게다 대면 훨씬달는, 쾌활하고 또는 꺾명량”한 영자가 등장한 이후 화자는 필수와 점차 멀어지고 빈민에 싸인다. 그러다 하계 방학을 맞아 영자가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고 난 후 화자는 영자의 일기를 통해 둘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일기책에는 필수씨와 산보한 것 차를같이마신 것 어느절간에서 늦도 록놀든일 또는 필수씨가 해순(나)를 단념하겠다는 것을 어렴풋이 했다는 말들이 적히어있고 사랑의편지와 그리고 영자와 필수씨가 서로정다히 촬영한 사진한장까지 나왔다. 그때에 나의심경을 엿지 요짜른 지면에다가 발표할수있으랴.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직시로 필수씨에 하숙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필수씨앞에 사진과 편지와 일기를 퍼서노코 서술이 퍼래서 질

문을했다 그리고 발악을했다 ...나는 미칠것같이 날뛰다가 다시하숙으로
도라와 퇴자에게주는 마지막의 편지를 남겨노코 약을먹고 자살한다!

「아니다 안될말이다」

나는 손에들었던 편지와 사진과 일기책을 다시 책상속에노코 전과같
이 그대로 장거노았다.³¹⁾

영자의 일기책 속에는 필수가 영자에게 준 사랑의 편지뿐 아니라 둘이
함께 정다히 촬영한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더욱이 필수가 해순을, 즉 자
기를 단념하겠다고 적혀있는 것을 본 화자는 절망에 빠진다. 화자는 “그
때에 나의심경을 엿지 요짜른 지면에다가 발표할수있으랴”는 말로 당시
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상상 속에서 그려보았던, 그러나 결
국 하지 않았던 일을 지면 위에 서술하고 있다. 필수에게 달려가 욕을 하
고 발악하며 미친 듯이 날뛰다가 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비극적 시나리오
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를 뒤로하고 일기책을 전과 같이 책
상 속에 넣고 그대로 잠가놓는다.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혼자 가장 설게 울”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 애쓰며 고독의 밤을 견
뎌낸다.

이후 고향에서 돌아온 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필수까지 하숙을 찾아오지만 화자는 그들의 관계를 “둘이 연극을 꾸민 어
리석은 수작”으로 치부하고 평소와 같이 이들을 대한다. 다만 화자는 밤
새 씨근거리고 자는 “어엿분악마 영자의 얼굴을 디려다보며 「오나 아모쪼
록 그대에게 행복이있으랴」며 작별의 인사를 고한다. 그리고 캄캄한 어
둠 속에서 상처입은 나 자신을 찾아내어 “「잊어버리자 내 자신을 일치말
자」고 다짐하는 것이다.

실제 여성이 맞닥뜨리는 일상의 균열은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자신이
놓인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들 여성 화자는 관계에

31) 원순갑(元順甲), 「상처(傷處)」, 『여성』, 1937. 12. 1. 54면.

매몰되지 않고 하나의 개인으로서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해 나간다.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 사랑하는 남성의 연인이 아닌 주체의 의지를 가진 단독자로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이러한 노력 가운데 여성은 주체로서 한 발 더 성장해 가는 것이다.

3. 타자화된 여성과 소외된 남성 주체

1938년 게재된 세 편의 독자 실화는 공통적으로 남성 서술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앞선 두 편의 실화에서는 1인칭 여성 화자의 시점에서 여성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었다면 여기에서는 3인칭 시점으로 남성 주인공이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들 실화는 풍경이나 인물의 내면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대화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설과 같은 구성으로 이야기의 극적인 재미를 배가시키고 있지만 남성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전개되면서 여성은 사랑의 대상으로 타자화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성의 이야기가 편지나 유서 등의 장치를 통해 교차 서술되면서 남성 화자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내면이 발견된다. 이러한 구성은 남성의 시선에서 바라보았던 여성의 모습과 실제 여성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대비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졌던 여성 인물의 주체적 측면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남성 필자의 서사에서 합리화되었던 여성에 대한 타자화가 실은 여성에 대한 오해나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결국 여성에 대한 타자화가 소외된 남성 주체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1938년 1월에 게재된 「끊어진기-타줄」과 동해 6월에 게재된 「눈물의

유서」는 동일 작가(김순례(金順禮))의 입선 실화로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을 맞은 남성 주인공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이후 여성이 남기고 간 편지나 유서로 마무리된다. 여성의 서신은 남성 화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독립된 이야기 구조로 삽입되어 여성의 내러티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이야기에 반전을 주는 장치로 활용되는 한편 남성 화자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계기로도 이용된다.

일(一)

「선생님!」 다소곳이 앉아까-타를 연습하고 있던 영애는 머리를들며 민호를 불렀다. ...개름한얼굴에 오뚝한코와하얀살결에 반짝이는 두눈은 아름다울뿐만아니라 총기와 재조가가득차있었으나 그가민호에게 까-타를 배우기시작한지 근세주일이되도록 웃는일이별로없고 언제나조고만입을 꼭 다물고있어 가을아침에된 서리와같이 쌀쌀하고 새침하였다.³²⁾

주인공 민호가 영애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끊어진 가-타줄」은 총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애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웃는 일이 별로 없는 새침한 여성으로 그려지는데 열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되는 3장까지 그의 내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백만장자에 셋째아들로 음악에천재를 가진” 민호는 인물까지 뛰어나 많은 여성들의 유혹과 칭찬을 받는 인물로 그려지며 이야기는 그의 시점을 따라 진행된다. 민호는 외롭고 쓸쓸해 보이면서도 묘한 매력을 가진 영애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고 잠깐의 행복을 맛보지만 곧이어 영애는 열병으로 죽고 만다. 만남에서 사랑, 이별까지 급박한 전개를 이어가던 이야기는 마지막 4장에서 영애의 길고 긴 서신을 통해 민호가 알지 못했던 영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된다. 이어서 게재되는 「눈물의 유서」 역시 남성 주인공 인준의 시점을 따라 시작된다.

32) 김순례(金順禮), 「끊어진가-타줄」, 『여성』, 1938. 1. 1. 60면.

아침에 출근을하니 오늘부터 새로오게된 녀사무원도 와있었다...호리호리한 몸집이라든지 히고도 개름한 얼굴은 어디로보나 미인타입이지만 그보다도 충기있는 두눈에 힘있는 매력이 있어보이는 것이 틀림없는 옛날의애인변희순이와 판에박은것같어도 방불하였다...

동무의소개로 xx여고를 다니는 변희순이를 알게되어 그때부터 두사람은 사랑이 시작되어가지고 열열한가운데 장래까지 굳게굳게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렇나 그이듬해 즉 인준이가 학교를 졸업하든봄에 희순이는 웬일인지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버리고 말았는고로 뜻밖에 이윽없이 실연을 당한 인준은 반은 미치다시피되어가지고 희순의시골집으로 몇 번이나 편지를 하여보았었으나 답장대신으로 갔든편지만 반환될뿐이었다.³³⁾

어느날 사무실에 출근한 인준은 새로 온 여사무원을 보고 깜짝 놀란다. 7년 전 전문학교 시절 만나 장래까지 굳게 약속했으나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첫사랑의 연인 변희순과 판에 박은 듯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무정하고 매정스런 희순이를 원망”하면서도 그를 잊지 못하고 삼십이 넘은 오늘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인준은 이름과 모습까지 비슷한 여성의 등장으로 과거의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다. 실제 새로 온 여사무원 변희영은 변희순의 동생으로 「눈물의 유서」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인준이 알지 못했던 죽은 언니의 사연과 그가 남긴 유서를 전달하는 매신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야기는 3인칭의 시점으로 전개되지만 인준과 희영의 직접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서술되면서 전편인 「끊어진가-타줄」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점을 보여준다.

이들 두 편의 실화는 남성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여성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주고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이상화되었던 여성의 실체가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들 사이에 놓인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김순례(金順禮), 「눈물의 유서(遺書)」, 『여성』, 1938. 6. 1. 76면.

민호씨! 저는 가련한 고아였습니다…그러나 민호씨! 세상에는 친절도 많고 사랑도 많읍니다. 세상은 과연장미꽃피인 아름다운동산입니다. 아름다운 그속에는살을찌르는가시가 빈틈없이도쳐있어요. 친절가운데는 야심을 채우라는 커다란계획이 들어있고 사랑속에는 사자와같은맹수성이 들어 있습니다.…가면을 쓴세상사람 가시돋힌사회 외로운이품 누구를보고말하면 무엇을보고웃겠어요. 세상은 무서웁고 슬프기만하였습니다. 속모르는 사람들은 쌀쌀하니매정하니 하고애매한저를 비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쌀쌀함이제게없었던들오늘날 영애는 어느함정에서 울고있을른지 아!생각조차두려웁니다.…당신은 저로하여말을하게하였고 웃게하였습니다 잃었던부모의사랑을 새로찾은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³⁴⁾

「끓어진가-타줄」의 마지막 4장에서는 영애가 민호에게 남기고 간 서신이 공개되고 있다. 여기서 영애는 자신이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던 가련한 고아였음을 밝히면서 외롭고 쓸쓸했던 자신의 인생사를 털어놓는다. 세상이 아름다운 꽃동산이 아니라 “살을찌르는가시가 빈틈없이도쳐있”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영애는 “가면을 쓴세상사람 가시돋힌사회”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쌀쌀하고 매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것은 영애가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영애의 편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전복시키며 오히려 영애를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한다. 편지를 읽고 난 후 민호는 그만 낯을 잃고 허공에 떠오르는 영애의 방긋 웃는 얼굴에 손을 내젓는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영애의 모습이 마치 환영과 같은 한갓 공상이었을 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눈물의 유서」 역시 마지막에 희순이 죽기 전에 인준에게 전한 편지가 공개된다.

「영원의애인 인준씨! 용서하세요. 냉정히도 당신의앞을 사라진 저의진

34) 김순례(金順禮), 「끓어진가-타줄」, 『여성』, 1938. 1. 1. 63면.

정은 모르시고 얼마나 원망하셨습니까. 폐병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은저를 내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당신을위하여 쓰림을참고 그같이 종적을 감추 었던것입니다. 병이완치된후에 또다시 당신의앞으로 가겠다고 편지를 그 몇번이나 썼다가는 찢고 찢었다가는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나 폐병! 전염 병! 저는 도저히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편지를 보낼수가 없었어요. 죄많은 저는 당신을두고 영원히 갑니다. 희순 올림」³⁵⁾

희영은 인준에게 폐병으로 투병하다 결국엔 죽음을 맞은 언니의 이야기를 전한 후 언니가 인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넨다. 편지 속에서 희순은 죽음을 맞으면서도 인준에게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을 남긴다. 전염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편지조차 보낼 수 없었으며 병을 고치고 돌아가 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한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의진정은 모르시고 얼마나 원망하셨습니까”라는 희순의 말은 자신의 진심이 인준에게 가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희순의 말처럼 그동안 “희순이를 원망하며 저주”했던 인준은 “생각부족한 자기를 후회하며 안타까움을 참지못하여 그대로 소리를내어 울”고 만다. 지난 7년간 자기의 세계를 지배했던 희순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실은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거짓 위로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들 실화는 사랑하는 여성의 죽음과 남성의 자각이라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도 안에서 감춰져 있던 여성의 내면을 통해 남성의 왜곡된 시선을 폭로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오히려 어긋나는 관계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분이」(1938. 3.1.)의 경우 전적으로 남성 화자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남성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의 이미지가 전면화되어 나타난다. 8년전 고향을 떠난 분이를 회상하는 남성 화자에게 분이는 “내맘엔 언제나 열여덟의 나의분이”³⁶⁾로 박제된다. 사랑했던 분이

35) 김순례(金順禮), 「눈물의 유서(遺書)」, 『여성』, 1938. 6. 1. 78면.

에게 거절당한 후 분이는 화자에게 이루지 못한 욕망의 대상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까짓 사립학교 사학년한것 지재지고 나무하는것 역시 농군이지--
빨간불 파란불의 도회 나죽한 자동차 높은집 꿈은옷 값진 화장품 그의 아버지가 글읽으라고사다준 저급소설에서 배운 이리한 부질없는 공상을 뒤푸리하고 되푸리하는 그때의 분이였습니다
좋은양복에 구두신고 안경쓰고 일본말할줄아는남편... 그의 허영이 그를 망치는 화단이되었습니다.³⁷⁾

“지개지고 나무하는 농군”이었던 자신을 거절한 분이는 결국 도시에서 온 유부남에게 속아 신세를 망치고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화자는 그 이유를 “도회의 화려함을 좇는 분이의 공상과 허영” 때문이었다고 서술한다. 자신에게는 “그까짓 농군”이라고 했던 분이가 도시에서 온 남자에게는 “제단의 어린양같이 순하였”다는 표현에서처럼 화자의 시선에서 분이는 타락한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분이의 불행은 다만 철없는 “열여덟처녀의 로맨틱한 생각이 애수에 빠”진 것으로 왜곡되고 그 가운데 이루지 못한 화자의 욕망은 오히려 순수한 것으로 치환된다.

이들 실화에서 여성은 사랑과 욕망의 존재로 대상화된다. 여성은 닿을 수 없는 영원성의 존재로 표상되고 실재하지 않음으로써 현현한다. 실제로 실화 속 여성들은 죽음을 맞거나 고향을 떠나면서 남성 화자의 세계에 부재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부재함으로써 존재하는 여성은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영원한 향수로 남성의 기억 속에 봉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실화는 여성의 내러티브를 삽입하여 여성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한다.

36) 임영창, 「분이」, 『여성』, 1938. 3. 1. 53면.

37) 임영창, 「분이」, 『여성』, 1938. 3. 1. 52면.

남성의 시선이 빗겨간 자리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의 일면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성의 시선에 각인된 여성의 이미지가 허구였음을 폭로하는 한편 욕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남성 주체의 위태로운 모습을 부각한다.

4. 남성성의 전유와 가부장의 해체

1940년 2월에는 「여성창간 4주년기념 원고모집」의 당선작으로 세 편의 독자 실화가 게재되었다. 원고모집에서는 총 4개의 주제³⁸⁾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당선 실화는 “남편의 방탕을 곧 아내의 수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주제는 “선량한 남편이 되게 하는 것은 주부의 정숙한 눈덕”이니 이를 “세상에 한번 자랑”해 달라는 설명이 부연되어 이시기 여성에게 부여된 또하나의 역할을 알게 한다. 즉 “남편의 안해로서의 완전한 안해가 되는 동시에...가정을 다스리는 나머지 나라일에 도움이 되는 의무”³⁹⁾가 바로 그것이다.

『여성』에서는 창간 초기부터 모성론을 통해 여성에게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이는 현모양처(賢母良妻) 논의로 확대되었다. 전시 초기에는 차대 황국신민이 될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 장기적 목표로 제시되었다면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서면서 출정군이 되거나 그 예정에 있는 성인 남성, 즉 가부장을 위해 복무하는 양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훈구는 「여성교육의 근본문제」⁴⁰⁾

38) 제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재혼(再婚) 성공담(成功談), 1. 남편(男便)의 방탕(放蕩)을 곧 아내의 수기(手記), 1. 유혹(誘惑)의 위기(危機)에서 벗어난 이야기, 1. 나의 연애(戀愛) 결혼기(結婚記)

39) 이숙중(李淑鍾)(성신가정여자학교교장(誠信家政女學校校長)), 「우리들나라의안해는」, 『여성』, 1939. 7. 1. 22면.

40) 이훈구(李勳求), 「여성교육(女性教育)의근본문제(根本問題)」, 『여성』, 1938. 10. 1. 28-31면.

에서 “현모되는것만이 현대 여성교육의 목적”이라거나 “량치주의만이 여자교육의 근본이상”은 아니며 오히려 인간주의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인간주의는 “여성으로서 여성다운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곧 “훌륭한 어머니, 리상적인 안해, 흠뻑커로서 훌륭한 가정주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결국 전시기에 대응한 가정에서의 여성의 포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시기 독자 실화의 당선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화의 주제는 여성 독자의 연애 결혼기, 유혹에서 벗어난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당선작 3편 모두 남편의 방탕을 고친 아내의 수기라는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되고 있다. 선후평이 실리지 않아 응모 내역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의 편집진들이 고선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당선작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의 당선작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주부의 정숙한 덕으로 남편의 방탕을 고치고 가정을 지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모양처 논의를 강조하고 독자들을 교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응과 인식은 무엇이었는가. 이들 독자 실화는 당대 여성 담론의 기조에 부응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여성들의 삶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토로하는가 하면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조건의 불합리성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반항도 함께 담고 있다. 여성들은 가정 밖 세계를 꿈꾸기도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로 이를 포기하면서 여성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실화에서 그려지는 가정에 복무하는 여성의 모습은 현숙한 여성의 덕을 실천하는 현모양처 논의를 비껴가고 있다.

이시기 게재되는 세 편의 독자 실화는 인내, 봉사, 희생, 의무 등 제시된 주제에 합당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정조, 남존여비, 일부일처주의, 남녀동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가부장적 해체와

이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으로서 언제든지 한번은 결혼하여야 되겠고 또한번은 남편의 방탕을 겪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일생을 남편의 방중한 생활로 인하여 가까운 청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여성들이 많으니 여성의 운명이란 야속도 합니다. 남성에게는 정조도 없고 체면도 없고 과실에 대한 구속도 없으나 여성이 한번 정조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회가 용납치 않으니 이것이 아마 남존여비란 거겠지요.⁴¹⁾

「인내의 길」은 가정을 위협하는 남편의 방종과 방탕이 결국 여성이 맞닥뜨려야 할 결혼생활의 일부분임을 폭로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그간 매체를 통해 강조되어 온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비하여 실은 가정의 균열에 대한 책임이 남성에게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사실을 피력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정조문제가 남성에게만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적 모순이 결국 남성들의 방탕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음의 실화에서도 이어진다.

이게 결혼생활이라는겐가? 여자는 다 나와 같을까? 아니 그보다도 남자라는건 모두 이런 것일까?

안해라는건 남편앞에서는 그저 설설 기여 다녀야만 되나 그건 벌써 옛날 태고의 일이지 오늘엔 좀 어려울걸.

「흥!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남녀 동등이 아닌가. 한 가지라도 덜 할 게 뭐람 뒤질 게 뭐람 좀 싸워 볼 걸 대드러 볼 걸 그렇게 삼삼하게 넘어갈 줄 알구 여잔 으레 약한 것인 줄만 아는군 쉽지 그렇게 어디 좀 보자.」 아주 이걸 대단한

41) 김신자(金信子), 「인내(忍耐)의 길」, 『여성』, 1940. 4. 1. 45면.

마음의 무장(武裝)입니다...⁴²⁾

이어서 게재되는 「마음의 보수」 역시 결혼생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결혼한 지 일 년이 못되어 남편의 방탕이 시작되었다고 한탄하는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만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현실에 분개한다. 남녀동등이라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가정에서의 아내의 지위는 여전히 태곳적과 마찬가지로는 사실을 깨달은 화자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대항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는 가부장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실화 「때리면때릴수록정성을베픈것이」에서도 나타난다. “결혼만하면 행복이쑈다저 남부럽지않게 살줄알았든”⁴³⁾ 화자는 기생과 바람이 나고도 자신에게 함부로 주먹세례를 퍼붓는 남편을 보고 그것이 “한낱 공상”이었음을 깨닫는다. “것즈른세상바다”에서 암초를 만난듯 길을 잃은 화자는 남편에게 살림을 떠넘긴 채 집을 떠나고 마는 것이다.

이들 실화에서처럼 여성은 결혼과 함께 아내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지옥한 안개속에 항해하든 인생초년병”과 같은 혼돈에 빠진다. 특히 이 시기 근대 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꿈꾸던 여성들은 결혼 후 가부장제의 완고한 벽에 부딪혀 현실을 자각하면서 내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 화자들은 남편에 맞서 싸우고 가출을 감행하면서 가부장과의 대결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는 개인적 차원의 대항으로 그치고 만다. 아이를 가지면서 여성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정을 지킬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별거를하자니 제에게는 것맥이어린애가 있고또두남매합삼남매가 있으니 이일을엇지합니까! 간난애만없다면 아모 직업이라도구하여 당장의 생

42) 원순갑(元順甲), 「마음의 보수(報酬)」, 『여성』, 1940. 5. 1. 80면.

43) 고영옥(高英玉), 「때리면때릴수록정성을베픈것이」, 『여성』, 1940. 6. 1. 85면.

활이야못하겠습니까! 저는멀리 만주같은곳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갈까 하고생각도 하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희들때문에 그것도단념하였습니다. 몇번이나 남편과 헤어질려고도하였습니다. 짓맥이 어린애만 없었든들 우리는헤어졌을것입니다.⁴⁴⁾

「인내의 길」의 화자는 기생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과의 “굴욕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별거를 결심하지만 짓맥이 어린아이까지 삼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결국 이를 단념하고 만다. 별거 후 직업을 찾기 위해 만주의 사립학교 교원까지 생각해 보았으나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면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일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먹을것만 있다면 자식을 다리고 남편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다는 언급에서처럼 경제적 문제가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남녀동등을 외치며 남편에게 대항하던 「마음의 보수」의 화자 역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생각을 돌려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봉사」

그렇다 나에게는 안해로서의 남편에대한 봉사의정신이 아조없었다. 그저내몸만 우예주길바랬다. 남편을 밧들너는 생각이 전연없었다

어디 끝까지참어보자 하며 입살을깨물어오며 이년(二年)이라는세월을 시종이여일하게 남편에게 대해왔을 때 그동안 어린애가 세상밖어나온것은 물론이고 남편의방종이 점점 줄어드는것이 보여졌습니다.⁴⁵⁾

아이를 가진 화자는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한다. 화자는 우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봉사의 정신을 가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어디 끝까지참어보자”는 인내와 희생의

44) 김신자(金信子), 「인내(忍耐)의길」, 『여성』, 1940. 4. 1. 45면.

45) 원순갑(元順甲), 「마음의 보수(報酬)」, 『여성』, 1940. 5. 1. 83면.

태도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어가며 남편이 원하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에 남편은 술도 끊고 가정으로 돌아와 어린 애 곁을 떠나지 않는 다정한 아버지가 된다. 그것이 바로 화자가 이년 동안 노력해온 「마음의 보수」인 것이다. 「인내의 길」의 남편 역시 결국 기생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가정으로 돌아온다. 일 년간의 폭풍우 같던 고난의 시간을 버텨온 화자는 자기와 같은 여성들에게 “나의 지조만 직한다면 죽어서라도 한번 남편의 눈물을 볼때가 있을테니 참는것이제일”이라고 조언한다.

여성 화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근본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들의 모습은 모성애를 넘어 상실한 가부장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이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등지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 남편, 즉 불안정한 가부장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그 한계를 부각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여 정성을 베프”⁴⁶⁾면서 남편의 방탕을 고치고 가정으로 회유하는 과정 역시 결국은 남성의 방종에 대한 일종의 경종의 내러티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달한 가부장으로서의 남성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은 남성성의 전유하는 여성의 역할 전환을 보여준다.

5. 결론

본고는 『여성』에 실린 8편의 독자 실화를 대상으로 여성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시기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여성』은 식민

46) 고영옥(高英玉), 「때리면때릴수록정성을베프는것이」, 『여성』, 1940. 6. 1. 86면.

지 말기의 여성 담론을 이끌어간 매체로, 특히 강력한 전시 체제의 가동에 있어 중심점이 될 ‘여성’⁴⁷⁾을 가정의 경영자로 호명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들과 내적 규율들을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규율화하였다.

창간 초기에는 모성론을 통해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강조하던 『여성』은 1938년부터 권두 기사로 태평양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전시체제와 국가총동원법 발령에 대한 사안들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비상시국에 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⁴⁸⁾ 또한 물자부족으로 인한 대용품 사용 등을 촉구⁴⁹⁾하고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생산력 확충과 소비절약에 매진해야 함⁵⁰⁾을 역설하는 한편 “신동아 건설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들”⁵¹⁾의 육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여성은 전시기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안위를 책임질 총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시기 여성의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 전시체제라는 국가위기 상황을 맞은 사적 영역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들 독자 실화에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부재한 남편과 아들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된 전시체제에 대한 일련의 보고 및 주의주장들은 이시기 여성 독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일상의 영역에서 여성들은 부재한 가부장의 자리를 대체하여 가정의 경계를 유지하고, 육아와 살림 등

47) 근대적 기표로써 ‘여성’은 부인이나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을 주체로써 호명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담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정선, 「근대 한국의 ‘여성’ 주체 — 기표의 각축을 통해 본 일제시기 여성 개념」, 『개념과소통』 19권, 한림과학원, 2017. 참고.

48) 이건혁(李健赫), 「가정시사독본(家庭時事讀本) : 장기전(長期戰)과 가정경제(家政經濟)」, 『여성』, 1938. 1. 1. 96-97면.

49) A기자(A記者), 「면직대용품(棉織代用品) - 스테이프·파이버란 무엇인가」, 『여성』, 1938. 5. 1. 90-91면.

50) 「년두사(年頭辭) - 장기전(長期戰)과 부인(婦人)의 임무(任務)」, 『여성』, 1939. 1. 1. 12면.

51) 박영숙(朴英淑), 「이세국민(二世國民)의 전시교육(戰時教育)」, 『여성』, 1940. 1. 1. 22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부분을 책임질 가정의 총체적 지휘관으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공적 영역으로 차출된 남성, 즉 가부장의 부재가 예상되는 시기 여성이 사적 영역(가정)의 수호자로서 가부장을 대체할 위치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역할 대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여성』에 게재된 독자 실화를 대상으로 식민지 말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이들 실화에서 여성은 자신이 놓인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하면서 문제적 상황에 대응해 가는 주체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파괴된 세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며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이들 실화에서는 남성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이면을 통해 사회적으로 타자화된 여성의 실체를 폭로하고 주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도 발견된다. 남성 화자의 시선에서 진행되던 이야기에 여성의 서신을 독립된 구조로 삽입하여 반전을 주는 한편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성의 이미지가 허구였음을 폭로하고 오히려 욕망하는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남성 주체의 위태로운 모습을 부각한다. 또한 이들 실화에서는 가부장의 해체와 이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여성은 방탕에 빠진 남성을 대신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편 미달한 가부장으로서의 남편을 교화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가부장을 대신해 가정을 전면에서 이끄는 여성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여성의 역할 전환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여성(女性)』, 1936. 4.~1940. 12.

2. 단행본

리타 펠스키,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3. 논문

곽은희, 「전시체제기 노동소비 담론에 나타난 젠더 정치 -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통권 59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63-98면.

문영주, 「일제 말기 관변잡지 『가정지우(家庭の友)』(1936. 12~1941. 03)와 ‘새로운 부인(婦人)」, 『역사문제연구』17권, 역사문제연구소, 2007. 179-202면.

김경연, 「근대문학의 제도화와 여성의 읽고 쓰기-『신여성』을 중심으로, 『코기토』 66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8. 97-126면.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 『여성』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64-265면.

박선영, 「근대 여성과 여행, 문화소비와 구별 짓기 -『신여성(新女性)』(1923-1934)과 『여성(女性)』(1936-1940) 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권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373-391면.

서영인, 「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현대소설연구』 3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35-149면.

서지영, 「부상하는 주체들 : 근대 매체와 젠더 정치」, 『여성과역사』 제12집, 한국여성사학회, 2010. 189-230면.

심진경, 「여성과 전쟁 - 잡지 『여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171-197면.

이정선, 「근대 한국의 ‘여성’ 주체 - 기표의 각축을 통해 본 일제시기 여성 개념」, 『개념과소통』 19권, 한림과학원, 2017. 93-139면.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 일제 강점기 문학에 나타난 모성 담론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117-145면.

이태숙, 「근대성과 여성주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184-203면.

김혜숙, 「인간학으로서의 인문학 : 주체와 젠더의 문제」, 『탈경계 인문학』 제1권 제1

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08. 7-28면.

황도경, 「지워진 여성, 반쪽의 문학사-근대문학연구에 나타난 '여성'의 부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0. 10-33면.

<Abstract>

A study on the reader's writing of the magazine
『Yeosung』 in the late 1930s

Jung, Young-Jin

This thesis tried to reconsider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female subject during this period by examining the true stories of eight readers published in 『Yeosung』. 『Yeosung』 standardized the new social role required of women as the manager of the household during the wartime period. Meanwhile, 『Yeosung』 tried to coordinate the discourse of women during this period by arranging the voices of women who responded to it through the reader section. In the reader's true story, women's experiences are signified as an event, and women stand at the center of the story. While exploring the social networks in which they are placed, women show the subjective aspect of responding to problematic situations. In these true stories, attempts to recover the subject and reveal the socially otherized woman's reality are also found through the other side of the woman who was excluded from the male gaze. It also captures the dissolution of the patriarchy and the female subject attempting to challenge it. The appearance of a woman who takes the place of the patriarch and leads the family at the forefront shows the shift in the role of women in responding to crisis situations.

Key words: Female subject, Narrative, Reader's true story, Motherhood theory, Women's discourse

투 고 일: 2021년 8월 27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